

파니움 - 제18번

250의 세 배

Jeff Pippenger

2026-02-25

이제 다니엘서 11장 12절의 몇 가지 함의를 검토하고, 이어 주전 200년 파니움 전투에서 성취된 11절부터 15절의 역사 속에 "250"년의 세 연대선을 도입하고자 한다. 주전 457년에 시작한 "250"년 연대선은 라피아 전투로 시작하여 파니움 전투로 끝나는 그 기간의 중간 지점인 주전 207년에 종결된다. 네로의 연대선에서의 "250"년은 313년, 321년, 330년으로 대표되는 콘스탄티누스의 삼단계 역사로 종결된다. 미국의 "250"년은 2026년 7월 4일에 종결된다.

네로의 선은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가 전개되는 역사를, 먼저 미국에서, 이어서 전 세계에서, 나타낸다. 기원전 457년의 선은 트럼프를 군사적으로 두 전투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시킨다. 1776년부터 이어지는 기간도 트럼프의 최종 대통령 재임에 있어서 중간 지점을 표시한다. 이 선들을 그 합당한 자리에 놓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2절과 러시아와 푸틴의 몰락을 다룰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250"년의 세 선,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선을 다룰 것이다. 그 선들이 제자리에 놓이면, 우리는 베드로를 파니움과 대응시킬 것이다. 그 선들이 제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2020년 7월 18일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로잡혀 선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의 왕 웃시야 및 애굽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라피아 전투에서 11절이 성취된 그 역사는 웃시야 왕의 역사와 상응한다. 이사야의 소명은 그가 정결케 되어 늦은 비의 메시지를 선포할 권능을 받을 때, 곧 웃시야가 죽던 해에 임하였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사야 6:1.

웃시야는 죽음에 앞서, 라피아 전투 승리 직후 프톨레마이오스가 드러낸 반역과 병행하며 상응하는 반역을 드러냈다. 웃시야와 프톨레마이오스는 마음이 높아진 남방 왕, 곧 국가 권위를 교회 권위와 결합하려 함으로써 반역하는 자를 상징한다. 웃시야가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결합하려 시도했을 때, 그의 이마에 생긴 나병은 짐승의 표를 예표하였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곧 그의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진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9-11.

웃시야는 교회와 국가를 결합하려는 그의 반역적 시도 시점부터 시작되는 점진적 죽음을 대표한다. 이어 그는 11년 동안 아들과의 레임덕 상태의 공동통치를 대표한다. 웃시야는 그의 반역 이후 11년을 더 살았다. 그의 반역의 시작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되고 짐승의 표가 강제되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11년 후 그는 죽었는데, 이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의 종결을 대표한다. 그 남유다는 영화로운 땅이었고, 그것은 곧 미국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의 예언적 관계에서 웃시야는 유다와 영화로운 땅, 그리고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며, 반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곧 그 종교가 강신술인 용의 권세를 대표한다. 두 왕을 평행선으로 고려하면, 웃시야는 더 이상 영화로운 땅의 예증이 아니게 되며, 그 둘은 함께 두 나라의 상징이 된다. 애굽과 유다는 강신술과 배도한 개신교의 종교를 상징한다. 그들은 국가와 교회의 상징이다. 그들이 하나의 상징으로 결합될 때, 그들이 대표하는 국정술과 교권술은 두 나라를 내포한다. 곧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러하였고, 프랑스의 애굽과 소돔이 그러하였으며, 미국의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뿔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러하였으며, 또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그러하였다. 두 왕국의 상징으로서 그들은, 웃시야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의해, 예언적으로 서로 결속된다. 같은 성소에서 함께 반역하는 두 나라.

두 왕의 반역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전은 다니엘이 10장에서 그리스도를 뵈었던 성전을 상징한다. 이 두 왕의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일치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증언은 2014년에 시작된다. 그들 둘 다 11절에서 라피아 전투로 표상된 군사적 승리로 높아졌다. 라피아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과 일요일 법령의 삼중연합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다. 또한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이행하는 경계이기도 하다.

2014년 이후, 가장 부유한 왕은 2015년에 대통령직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2020년에는 공화당의 뿔을 대표하는 가장 부유한 왕이 훗날 치유될 치명상을 입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었다. 그런 다음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13절의 성취로서 돌아왔다. 2023년 7월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23년 12월 31일에는 개신교의 뿔이 부활하였고,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돌아올 때 공화당의 뿔도 부활하였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성전의 시험이 도래함으로써 기초의 시험이 종결되었다.

1989

1989년에 봉함이 풀린 진리들은 두 가지였다. 개혁 운동들의 예언적 대응 관계와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 동시에 봉함이 풀렸다. 40절의 초기 기별을 확립하기 위해 적용된 특정한 예언 해석 규칙들이 있다. 바로 그 진리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 예언적 보석들이 발견된 바로 그 동일한 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89년 당시,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절이 무엇을 표상하는지에 관하여 재림주의 내에는 통일된 이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통일성의 결여는 이중적이었다. 첫째, 그 절들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그 절들을 이해한다고 자처한 자들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과 뒤섞인 인간적 사상들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1863년의 반역에서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장자권의 유산이었고, 그 선조들은 여로보암의 근본적 반역에서 불순종한 선지자의 역할을 성취하였다. 그 절들에 대한 그러한 개별적 견해들은 기껏해야 사적 해석에 불과하였다. 그들의 절들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 예언적 적용에 상충되었고, 종종 그들 스스로 그 절들에 관하여 규정한 바로 그 전제와도 모순되었다.

우리가 그 구절들에서 본 것은 여섯 구절 전체에 대한 일관된 이해였다. 우리가 본 그 메시지의 일관성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한 바를 재림교계 전체가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나는 내 이해를 제시할 용기를 얻었다. 그 구절들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한 바는 1996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그때 제시된 이해는 세월이 삼십여 년 흘러오는 동안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기만 했다.

잡지 The Time of the End의 맨 처음 인용을 살펴보면, Testimonies 9권 11쪽이 나온다. 그 잡지는 9/11 5년 전에 9/11로 시작한다. 나를 격려해 준 이해들 가운데 하나는, 40절의 '끝의 때'에서 북방과 남방의 왕들이 문자적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화잇 자매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책이며, 다니엘서에 있는 동일한 예언의 계통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이어진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1798년의 '끝의 때'를 둘러싼 역사 속에서 성취된 요한계시록 11장에 관하여, 그 장에 대한 화잇 자매의 주석이 프랑스가 영적 애굽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짐승 위에 앉은 음녀가 영적 바벨론임을 역시 똑같이 분명히 하였다.

화잇 여사가 그 두 권세를 규정한 바는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논평들은 요한과 다니엘의 증언을 서로 결속시킨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 왕의 정의는 애굽을 지배하는 권세이고, 북방 왕은 바벨론을 지배하는 권세이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결합하여 그 논점을 입증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진리를 확립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그릇된 신학자에게도, 혹은 자립 사역의 그릇된 자칭 지도자에게도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웃시야를 라피아 전투와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뒤에 일어나는 여파의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의 대리 세력을 격파하는 용의 권세를 대표하지만, 결국 10절과 1989년에 프톨레마이오스를 패배시켰던 그 대리 세력에게 패하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역사적 구분은 의도적이며 중요하다.

웃시야는 교회와 국가를 결합시키려 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웃시야는 영화로운 땅이며, 영화로운 땅은 1989년에 이 기별이 시작될 때 주요한 논점이었다. 영화로운 땅은 미국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가리키는가? 그때 영화로운 땅이 재림교회를 의미한다는 그릇된 관념을 고수하던 이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이들은, 45절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것이니, 그들에게는 산과 땅이 동일한 상징이라는 뜻이 된다. 아마도 전형적인 인간적 추론일 것이다.

웃시야는 영화로운 땅이며,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이다. 영화로운 땅으로서의 웃시야는 개신교와 공화주의라는 두 별을 지니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정치적 현현은 공산주의와 그 다양한 양태이며, 프톨레마이오스의 종교적 현현은 심령주의와 그 다양한

양태이다. 용의 세력의 한 특징은 그것이 연합체라는 점이지만, 영화로운 땅인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진 단일 국가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1989년에 소련이 소멸되었을 때 미국이 교황권의 대리 세력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짐승의 역할과 부합하는데, 이는 두 책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12.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미합중국을 교황권의 대리 세력으로 지목한다. 2절에서 이교 로마의 용은 교황권에게 그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power'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능력'을 뜻하지만, 12절에서는 'power'로 번역된 단어가 달라서 '위임된 권위'를 의미한다.

미국은 교황권의 대리 세력이다. 교황권은 이교 로마에 의해 예표되었는데, 이 이교 로마는 2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황권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 로마는 또한 자기의 "병거, 함선, 기병"을 제공하여 교황권의 더러운 일을 수행할 미국을 예표하였다.

10절, 11절, 15절의 세 전투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을 때, 각 전투마다 안티오쿠스 대왕이 있었다. 이 사실은 세 전투에서 표상된 권세가 짐승의 대리 세력임을 밝혀 주는데, 이는 그 권세가 언제나 안티오쿠스이며, 1989년의 안티오쿠스는 미국을 대리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16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세 전쟁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를 지니며, 또한 진리의 구조를 지닌다. 첫째 전쟁과 셋째 전쟁에서는 미합중국이 등장하며, 이로써 첫째와 마지막 전쟁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식별된다. 16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그 세 전쟁은 또한 진리의 표지를 지닌다. 대리 세력인 나치 우크라이나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틀에서 중간 이정표의 반역을 표상하는 중간의 전쟁이다. 그 세 전쟁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를 대표하는바, 이는 곧 그것들이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대표함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두 뿔 모두가 부활하는 시점을 2023년으로 지목한다. 다니엘 11장 11절도 바로 그 동일한 역사적 시기를 지목한다. 예언의 내적 선과 외적 선은 2023년에 일치한다. 내적 선은 다니엘이 이해한 '것'이며, 외적 선은 그가 이해한 '환상'이다.

다니엘이 제시하는 성전의 시험은 제22일에 시작되었으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시점으로 규정되는 9/11로부터 22년이 지나면 2023년에 이르게 된다. 이사야는 나병을 앓으며 11년을 산 후 웃시야가 죽은 일을 9/11에 위치시킨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먼저 기초를 놓고, 그다음 성전을 세워 머릿돌을 얹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레위기 23장의 선상에서 나팔절로 표상되는 세 번째 시금석으로 이어진다. 영원한 복음의 내적 사역은

외적 선의 역사 동안에 성취된다. 11절에서 푸틴은 프톨레미로 표상되어 있으며, 웃시야 왕은 군사적 성공으로 높아진 뒤 종교의 영역에 자신을 끼워 넣고자 시도하는 남방 왕의 도식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남방의 왕이 격분하여 나아가 그와, 곧 북방의 왕과 싸울 것이요, 그가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군대는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가 그 군대를 취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수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강해지지는 못하리라. 다니엘 11:11, 12.

우리야 스미스는 프톨레마이오스 필로파토르의 역사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 시도를 논급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승리를 올바르게 활용할 만큼의 신중함이 없었다. 그가 그 성공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아마 안티오코스의 전 왕국의 지배자가 되었을 터이나, 몇 마디 위협과 몇 차례 협박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짐승적 정욕을 끊임없고 억제되지 않은 방종에 내맡기고자 화친을 맺었다. 이리하여 원수들은 정복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악덕에 패하였고, 자신이 세울 수도 있었던 위대한 명성을 잇은 채, 연회와 음탕에 세월을 보냈다.

그의 마음은 성공으로 높아졌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더욱 견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가 그것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사용한 탓에 그의 신민들 자신이 그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것은 특히 유대인들과의 교섭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그곳의 율법과 종교에 반하여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자 매우 열망하였다. 그러나 큰 어려움 끝에 만류를 당하자, 그는 온 유대 민족에 대한 분노로 불타며 그곳을 떠났고, 곧바로 그들을 상대로 혹독하고 가차없는 박해를 시작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시대 이래로 거주하며 가장 우대받는 시민의 특권을 누려 온 곳인데—이 박해로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사만 명이, 제롬에 따르면 육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집트인들의 반란과 유대인들의 학살은 분명 그의 왕국에서 그를 견고하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거의 전적으로 파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54쪽.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가 거둔 군사적 승리는 프톨레마이오스를 강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푸틴을 강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이는 군사적 성공으로 말미암아 웃시야 왕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웃시야는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사슬갑옷과 활과 돌을 던지는 물매를 준비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자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그의 이름이 먼 데까지 퍼졌으니, 그가 강성하게 되기까지 기이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져 패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분향단 위에 분향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음이라. 역대하 26:14-16.

군사적 승리로 마음이 높아진 남방의 두 왕이 같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 하였는데, 이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다. 두 경우 모두 제사장들이 그 교만한 왕들의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였다. 그 후 한 왕은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감행하였고, 다른 왕은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다.

그 뒤를 따라 제사장 아사라가 들어가고, 그와 함께 용맹한 자들인 여호와와 제사장 팔십 명도 들어갔다. 그들이 왕 웃시야를 막아 서서 그에게 이르되,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소관이 아니요, 오직 분향하도록 거룩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니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과하였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이에 웃시야가 노하여 분향하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잡았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분내는 동안 여호와와 전에서, 분향단 곁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일어났다.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곧 그곳에서 그를 몰아내었고, 그도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서둘러 나갔다. 왕 웃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로 있었고, 나병환자이므로 별거처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와 전에서 끊어졌음이라.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재판하였다. 웃시야의 남은 행적, 처음과 나중은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느니라. 역대하 26:17-22.

2014년에 유럽의 글로벌리스트들과 오바마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상대로 컬러 혁명을 개시하였다. 2022년에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푸틴과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침공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남방의 왕들인 프톨레미와 웃시야로 표상된다. 12절은 푸틴의 승리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요, 그가 수만을 앞드러뜨릴 것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고 말한다. 그 후 역사는 그의 왕국의 점진적 몰락을 기록한다.

점진적인 몰락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안티오코스 대왕이 라피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려 할 즈음에는, 안티오코스는 더 이상 프톨레마이오스 필로파토르와 상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때 안티오코스가 상대하던 이는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는 마지막 세대를 상징하므로, 한 차원에서는 안티오코스가 파니움에서 패배시킨 소년 왕이 남방 왕국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한다. 실질적 차원에서는 그 소년 왕은 안티오코스의 강성에 비해 약함을 표상한다.

프톨레미 필로파터와 안티오코스 사이에 체결된 화친은 십사 년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 프톨레미는 무절제와 방탕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프톨레미 에피파네스가 그 뒤를 이었는데, 당시 그는 네다섯 살에 불과한 유아였다. 같은 시기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 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방 지역들을 복속시켜 그들의 복종을 공고히 하였으므로, 어린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의 왕위에 오를 즈음에는 어떠한 원정에도 나설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영토를 확대하기에 놓치기에는 너무도 좋은 기회라 여겨, 그는 "이전의 것보다 더 큰" 막대한 군세를 일으켰는데(이는 동방 원정에서 다수의 병력을 모으고 막대한 부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유아 왕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집트를 향해 출정하였다. 그가 어떻게 성공하였는지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기에서 이들 왕국의 정세에 새로운 복잡한 국면이 개입하고,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55.

남방 왕

러시아의 최종 단계를 개괄하는 것은 곧 예언적 남방 왕의 최종 단계를 개괄하는 것이다. 끝의 때인 1798년에 예언적 역사 속에 등장한 영적 남방 왕의 예언적 특징은, 그것이 어떻게 그 종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북방 왕과 거짓 선지자에게도 해당하는 예언적 특징이다.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이 세 세력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푸틴과 러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이미 과거의 남방 왕의 역사적 전개에서 예표되어 왔을 것이다.

영적 남방 왕의 몰락의 사례들은, 혁명기 무신론적 프랑스였던 최초의 영적 남방 왕의 몰락에 의해 예표되었다. 남방 왕국의 몰락에는 남방 왕의 몰락이 포함된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프랑스의 몰락에 상응하며, 다음 남방 왕국, 곧 러시아의 몰락과도 부합한다. 현대의 남방 왕으로서의 러시아는 혁명으로 시작했으며, 남방 왕으로서의 프랑스가 혁명으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혁명은 남방의 왕들을 상징하는 용의 특성이다. 남방의 왕의 주요 상징인 그 용은 사탄이며, 천년기의 끝에 그가 혁명을 시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를 삼킨다. 시초에 하늘에서 일으킨 그의 반역은 천년기의 결말에 있을 그의 반역의 알파였다.

1798년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중에 남방의 영적 왕으로서 예언적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 혁명은 유럽의 열국을 휩쓸어 마침내 러시아 혁명에 이르렀고, 이어 같은 해에 곧바로 볼셰비키 혁명이 뒤따랐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두 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되었다: 2월 혁명(차르 전제군주제를 타도하고 전제 정치를 종식시키며, 소비에트와의 이중 권력기 속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함)과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레닌의 지도 아래 볼셰비키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여 소비에트 통치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길이 열림).

역사적 분석과 혁명 이론에서(특히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유비를 설정하는 다른 이들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1789-1799)은 러시아의 사건 경과에 대한 전형을 이루거나 도식을 제공한 것으로 종종 간주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단계들을 전형화한 프랑스 혁명의 두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초기의 온건/입헌적 단계(대략 1789-1792년)로, 이는 2월 혁명과 상응한다. 이 프랑스의 단계는 바스티유 함락, 삼부회/국민의회 소집, 봉건적 특권의 폐지, 인간의 권리 선언, 지롱드파와 온건 개혁가들의 지도하에 입헌군주제의 수립으로 개시되었다. 이 단계는 절대군주제를 타도하였으나, 부르주아/자유주의적 통치의 요소와 이중적/경합적 권력 구조(예: 의회와 잔존하는 군주정 사이)를 유지하였다. 마찬가지로, 1917년 2월은 차르 체제를 종식시켰으나, 부르주아적 임시정부와 소비에트와의 이중권력으로 이어졌다.
- 급진/자코뱅 단계(대략 1792-1794년, 제1공화국의 수립, 루이 16세의 처형,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공안위원회 하에서의 공포정치를 포함하는)는 10월(볼셰비키) 혁명과 상응한다. 자코뱅은 보다 온건한 지롱드파로부터 급진적 행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공화국을 선포하며, 반혁명을 탄압하고, 혁명을 보다

심대한 사회 변혁과 내부/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로 추동하였다. 이는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통치를 공고화하며, 혁명적 사회주의를 진전시킨 방식과 상응한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혁명이 종종 다음과 같은 유형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온건파/부르주아 세력이 주도하는 구체제에 대한 초기의 광범위한 봉기가 있고, 이어 위기 속에서 혁명을 '구원'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급진파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가 뒤따른다. 볼셰비키 자신들 또한 프랑스의 전례를 의식적으로 원용하여, 그들의 10월 봉기를 자코뱅파의 쿠데타에 상응하는 것으로—반혁명을 방지하고 혁명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간주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은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그는 그 책에서 러시아의 이중권력 단계를 프랑스의 유사한 동학과 명시적으로 비교한다)와 러시아 사태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술들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녀는 러시아 혁명의 제1기(3월-10월)가 프랑스(및 영국) 혁명의 도식을 따른다고 지적하고,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이 자코뱅파의 부상과 병행한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작을 통하여 종말을 예증하시며, 남방의 최초의 영적 왕인 나폴레옹의 몰락은 혁명 초기의 이정표들을 따랐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의 몰락을 표상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두 국면이 러시아 혁명의 1917년 2월과 10월 단계를 예표했던 것과 같은 예형론적 틀 속에서, 나폴레옹의 점진적(단계적) 몰락은 소련의 점진적 쇠퇴와 1991년 해체와 밀접하게 상응한다. 이 상응성은 급진적 정점 이후의 공고화 국면(보나파르티즘)과 그 불가피한 와해에까지 확장된다. 이는 일반사적 패턴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특히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 및 관련 저작)에 근거하는데, 이 분석들은 나폴레옹을 보나파르티즘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혁명의 급진적 정점 이후에 출현하여 계급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혁명의 핵심 구조적 성과를(그 민주주의적 추동을 억압하면서) 보존하며, 개인적·군사·관료적 제국을 구축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뒤, 단계적 붕괴를 겪어 구체제의 부분적 복고로 귀결되는 강권적 지도자 정권.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주의적 부상은 스탈린주의적 권력 공고화와 상응한다.

자코뱅의 급진기와 테르미도르 반동(1794), 불안정한 총재정부(1795-1799)를 거친 뒤,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1799)로 통령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제정(1804)이 성립한다. 그는 부르주아 혁명의 성과(나폴레옹 법전, 봉건적 특권의 종식,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성문화하고 대외적으로 확산시키지만, 이를 권위주의적 지배, 군사적 영광,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에 종속시킨다.

볼셰비키/10월 혁명의 급진적 단계와 초기 소비에트의 실험기를 지난 뒤, (특히 1920년대 중반부터) 관료적 타락이 시작된다. 스탈린의 권력 공고화는 좌익 반대파를 격파하고, '일국사회주의'를 강제하며, 경찰·군사·관료제적 독재체제를 수립한다. 계획경제와 국유화된 재산(10월의 핵심 성과)은 보존되었으나, 국제주의는 포기된 채 특권적 카스트의 도구로 전환되었다.

두 경우 모두 혁명적 에너지는 “동결”되어 단일한 인물 혹은 기구 아래에서 국가 권력과 팽창으로 전용된다(트로츠키는 스탈린 체제를 “소비에트 보나파르티즘”의 한 형태로, 통령정부보다 나폴레옹의 제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단계적 붕괴

이것이 핵심 구도이다—쇠퇴는 하나의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과도한 팽창, 내적 모순, 군사적 수렁, 주변부 통제의 상실, 개혁의 실패, 그리고 최종적 해체/복원에 의해 추동되는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침식이다.

나폴레옹 측(1812년부터 1815년까지)

- 1812년: 재앙적인 러시아 원정—그랑다르메(60만 명)는 병참 문제, 혹한, 그리고 저항으로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파국적 전환점; 위신과 병력의 막대한 상실.
- 1813년: 그에 대항하는 연합이 결성됨; 라이프치히(‘민족들의 전투’)에서 패배—독일 동맹국 및 영토의 상실; 제국이 축소되기 시작함.
- 1814년: 연합군이 프랑스 본토를 침공하고, 파리가 함락되며, 나폴레옹은 퇴위하여 엘바 섬으로 유배된다.
- 1815년: 일시적 귀환(백일천하), 워털루에서의 최종 패배; 세인트헬레나 섬으로의 영구 유배; 부르봉 왕정복고(혁명적 성과의 반동적 환원, 다만 전면적이지는 않음—일부 법적·행정적 변화의 존속).

소련 측(1970년대부터 1991년까지)

- 1970년대 말~1980년대: 브레즈네프 치하의 ‘zastoi’로 불리는 경제적 침체, 만성적 물자 부족, 기술적 낙후, 그리고 미국/나토와의 파괴적인 군비 경쟁—체제적 과잉확장이 경제를 내부로부터 잠식하기 시작한다.
- 1979-1989: 아프가니스탄 전쟁—소련의 ‘베트남’; 이 수렁은 자원과 사기를 소모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켰다(역설적 유비에 주목할 것: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궤멸되었고, 소련은 험준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전역에서 출혈을 강요당했다).
- 1985-1989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개혁은(체제를 ‘구원’하려는 시도였고, 나폴레옹 말기의 일부 조정과 유사하였으나) 오히려 모순을 노출시키고 가속화하였다; 동구권 위성국들은 봉기하여 이탈하였고(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89-1990년에 걸친 정권 붕괴), 그 결과 ‘외부 제국’의 상실에 이르렀는데, 이는 나폴레옹이 동맹국들을 상실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였다.
- 1990~1991년: 내부의 민족주의 위기가 발생하고 공화국들이 주권을 선포하였다; 1991년 8월 강경파 쿠데타가 참담하게 실패하였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하였다; 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었다. 그 뒤 자본주의적 복원이 이루어졌다(엘친 시기의 충격요법, 올리가르히, 민영화) — 부르봉 왕정 복고에 비견된다: 혁명 이전의 계급적 요소들(혹은 그에 상응하는 세력)이 복귀하여, 일부 행정적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혁명적 재산 관계의 완전한 형태를 후퇴시켰다.

두 경우 모두에서 '제국'(프랑스의 대륙봉쇄체제 대 소련의 동구권/COMECON의 영향)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파편화되고, 내부적 부패가 가속화되며, 최종적 위기가 그 공허함을 드러내고, 낡은 사회적 세력(군주제/자본주의)이 재확립된다. 보나파르트주의는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트로츠키의 말대로 '꼭짓점 위에 균형 잡힌 피라미드'—이는 적대적 외부 압력 속에서 혁명의 경제적 토대를 방어하되(그러나 왜곡하며) 동시에 혁명의 민주적 기반을 억압하는 데 기초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진적 내부 부패의 귀결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의 제국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이은 패배를 통해 침식되어 결국 복고에 이르렀다.

프랑스와 소비에트 연방의 시작과 종말은 웃시야 왕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증언과 상응한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는 라피아 전투(기원전 217년)에서 북방 왕(안티오코스 3세)을 상대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강성하지 못하리라"—우세를 밀어붙이지 않고 평화를 택하고, 사치와 자기 고양으로 되돌아갔으며, 이어서(제3 마카베오기 1-2장에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승전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마음이 높아진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시도하였는데—이는 참 하나님을 향한 찬탈과 도전의 행위였다. 그는 신적 타격(마비)을 받아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길로 돌아선다. 그 이후 그의 통치는 점진적 쇠퇴의 길을 걸었으니, 도덕적 부패와 내부 반란, 그리고 세력의 상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어졌다. 이는 군사적 성공 후 마음이 높아져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다가(제사장 직분을 찬탈하며) 이마에 나병이 발하여 공적이고 가시적인 심판을 받은 웃시야 왕(역대상 26:16-21)의 경우와 정확히 상을 이룬다. 그때부터 웃시야는 여호와의 집에서 끊겨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았으니—그 종말은 즉각적 멸절이 아니라 더디고 오래 지속되는 쇠잔한 죽음이었다.

둘 다 남방의 왕들로서, 그들의 교만은 예루살렘 성전 침입으로 드러나며, 그 뒤에는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침식적인 결말이 뒤따른다. 이것이 이후의 모든 '남방의 왕'에 대한 예형론적 전형이다.

1798년: 프랑스가 남방의 영적 왕이 되다

"끝의 때"(1798)에 무신론적 프랑스(갓 이집트의 영적 특성—요한계시록 11: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함—을 드러낸 세력)는 교황을 사로잡음으로써 북방 왕(교황권)에 공세를 가한다. 나폴레옹은 그 공세의 군사적 체현이다. 프랑스는 1798년에 남방의 왕관을 쓴다. 이는 그것이 고대 이집트가 체현했던 동일한 무신론적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의 '승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급진기는 그 성과를 지속하지도, 온전히 수출하지도 못하였다. 무신론의 철학이 성숙하고 새로운 정부 차원의 목소리를 얻음에 따라, 남방의 왕관은 계속하여 이전된다.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지도력의 상징들: 나폴레옹에서 레닌을 거쳐 스탈린까지

이 세 가지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점진적인 결말들이다—각각이 남방의 왕이 자기 자신의 서서히 진행되는 해체를 향해 나아가는 궤적에서 더 진전된 한 단계를 나타낸다. 나폴레옹—1798년 이후의 첫 번째 위대한 표상. 그는 이집트(문자적 남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과도하게 확장하였다(1812년 러시아 원정은 대참패였고, 이것이 1813-1814년에 그의 제국 주변부에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패배의 연쇄를 촉발하였다), 최종적 패배(1815년 워털루)를 당하고, 두 차례 유배되었다. 나폴레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몰락을 표상한다—프톨레미와 윗시야의 경우와 정확히 같다.

레닌은 1917년 10월 혁명에서 왕관을 탈취했다. 볼셰비키의 "공세"는 종교 권력을 포함한 구질서에 대한 전쟁을 지속한다. 그러나 급진적 국면은 안정될 수 없으며, 레닌 자신의 건강도 조기에 쇠약해지고, 체제는 관료화되기 시작한다.

스탈린, 공고화자(소비에트 보나파르티즘)는 혁명을 군사-관료적 제국으로 '동결'시키고, 핵심적 성과를 보존하되(국유화된 경제—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반봉건적 상응물), 권력을 안으로(숙청)와 밖으로(팽창) 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무신론 가운데서 스스로 높아지며, 그 체제는 진정으로 '자기 승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과잉팽창(아프가니스탄—나폴레옹의 러시아에 대한 상응물), 정체, 실패한 개혁(페레스트로이카는 마지막 절박한 시도였다), 위성국의 상실(1989-90 = '동맹'의 상실), 그리고 최종적 해체(1991)로 이어진다.

소련의 붕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점진적이었다. 그것은 나폴레옹의 제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침식되어 갔던 것과, 또한 프톨레마이오스와 윗시야의 통치가 성전을 향한 교만의 순간 이후 시들어 갔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영적" 남방의 왕(정부 형태의 무신론)은 그 나름의 길게 이어지는 심판을 받았다: 내부로부터 비워지고, 그 거짓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북방의 왕의 대항 운동(공백 속에서의 교황권의 재부상)에 휩쓸려 갔다.

프랑스 혁명(두 단계)은 러시아 혁명(2월과 10월/볼셰비키)을 예표한다. 나폴레옹적 보나파르티즘과 점진적 쇠망은 스탈린주의적 공고화와 소련의 점진적 쇠망을 예표한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 11장의 남방 왕의 계열이 현대에 전개된 것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라피아에서의 실패와 성전에 대한 오만으로부터, 윗시야의 동일한 죄와 더딘 종말을 거쳐, 1798년의 프랑스와 그 승리들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지 못했던 그 무신론적 상속자(레닌-스탈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레닌은 급진적 창건자 혹은 권력 탈취자였다(자코뱅/볼셰비키의 부상에 비견되며; 1917년 이후의 '밀어붙임' 단계는 브뤼메르 이후 나폴레옹의 초기 통령정부에 상응한다). 스탈린은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고화자였다(소비에트 제국의 건설, 숙청, 제2차 세계대전 승리, 냉전의 정점; 무신론 가운데 마음이 높아졌으나, 승리를 완전히 '견고케' 하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과잉확장이 시작됨).

흐루쇼프는 정점 이후의 '해빙기' 지도자였다(1953~1964). 그는 스탈린을 규탄하고(1956년 '비밀 연설'), 일부 부패를 폭로하며, 제한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체제적 모순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는 '테르미도르' 또는 쇠퇴 초기에 해당하는 국면과 상응한다. 곧 공포정치가 완화되는 동안에도 핵심적인 무신론적 구조는 존속하지만, 위신은 침식된다(예컨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의 굴욕은 이후의 대규모 패배들에

앞서 나타난 나폴레옹의 소규모 좌절들을 반영한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재구성)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체제를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내세운 절박한 개혁가(1985-1991)였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붕괴를 가속화하여 동구권의 상실(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과 내부 반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가장 명백한 "점진적 결말"의 표지로서, 1814년 침공 직전에 나폴레옹이 뒤늦게 시도한 조정과도 같고, 성전의 교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웃시야에게서 이어진 장기화된 쇠퇴와도 같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북방 왕)와의 협약/회담은 영적 패배를 상징한다-남방 왕의 무신론이 교황권의 재흥에 굴복하는 것이다.

엘친은 (1991년 이후) 최종 해체의 인물로서 1991년 8월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이끌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소련의 해체(1991년 12월)를 감독하고, 충격요법에 의한 민영화와 자본주의 복원을 추진하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중국과 혁명 이전 요소들의 부분적 "복원"(과두적 자본주의, 나폴레옹 이후 부르봉 왕조의 복귀와 같은)을 체현한다. 남방 왕의 왕궁이 휩쓸려 버리니, 이는 다니엘 11장 40절의 북방에 의한 회오리바람 같은 정복(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교황권)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형론은 즉각적인 몰락이 아니라 지연되고 단계적인 심판을 강조한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라피아 전투 승리가 교만, 성전 침범, 신적 징벌, 그리고 완만한 쇠퇴로 이어진 것과 같고; 웃시야가 나병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격리된 것과 같으며; 나폴레옹의 단계적 패배(러시아, 라이프치히, 파리, 엘바, 워털루)와도 같다. 소련의 전개선은 스탈린 치하에서 최고조의 역량에 도달함을 지목하며, 흐루쇼프의 해빙기에는 체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점진적 공동화가 진행됨을 보인다. 이어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체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가속제가 되며; 엘친의 시대가 일소를 완결한다(소련 해체, 무신론의 국가적 형태의 종언). '마음이 높아짐'은 이 선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무신론적 도전), 누구도 '승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

남방의 왕들의 종말은 점진적이며, 사탄의 몰락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는 천 년 동안 유배된 후 사망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는 용, 곧 옛 뱀, 마귀요 사탄인 자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넣어 닫아 가두며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야 하리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곧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리라.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 에워싸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거기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1-10.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11장 11절부터 15절의 남방 왕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The Time of the End라는 잡지는 1996년에 발간되었으며, 1989년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의 예언을 제시한다. 최근 이 잡지는 ChatGPT에 의해 읽혔고, 잡지에 제시된 40절에 해당하는 역사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다음은 30년 동안 공개 기록으로 존재해 온 이 잡지의 구성 개요이다. 잡지에 수록된 엘렌 화잇의 저술 가운데 첫 번째 인용문은 Testimonies 제9권 11이다.

개관: 예언적 체계 속의 우크라이나

잡지의 다니엘 11:40-45에 대한 예언적 개요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붕괴 및 교황권(북방 왕)과 무신론적 공산주의(남방 왕) 사이의 투쟁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우크라이나 가톨릭교회와, 소련 통치 아래 수십 년간 억압된 후 그것이 합법화된 일과 관련하여, 대리전의 종결 단계에서 핵심적인 종교적·지정학적 격전지로 제시된다.

그 잡지는 우크라이나를 다니엘 11장 40절의 보다 광범위한 예언 성취의 일부로 제시하며, 바티칸과 미국의 동맹을 통해 남방 왕을 쓸어버리는 것으로 서술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무신론이 약화되고 동유럽에서 가톨릭 영향력이 재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제시된다.

북방 왕과 남방 왕 간의 전쟁 속의 우크라이나

이 잡지는 남방 왕이 무신론이며, 이는 먼저 프랑스(1798)에 의해, 이어 소비에트 러시아에 의해 구현되었다고 가르친다. 북방 왕은 교황권이며, 다니엘 11장 40절은 1798년에 시작되어 1989년 소련 붕괴로 귀결되는 영적 전쟁을 묘사한다. 우크라이나는 이 맥락에서 다니엘 11장 40절의 성취 속에서 휩쓸려 가는 소비에트 블록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 잡지는 소련의 붕괴를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요한계시록 13장)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로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에 대한 탄압 (인용 출전)

이 잡지는 소련 치하의 가톨릭 박해에 관한 세속적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1989년 12월 4일자 타임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격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유혈사태는 비교적 적었던 박해가 우크라이나와 새로 형성된 소련권으로 확산되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 수백만 명과 더불어 정교회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가톨릭이 억압을 받은 주요 지역으로 지목된다.

우크라이나 가톨릭교회의 합법화

우크라이나에 관한 논의의 주요 초점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온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합법화에 있다.

라이프 매거진 1989년 12월호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최근 가톨릭 주교 세 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고르바초프가 이탈리아 방문 중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회담을 갖는데, 이는 크렘린과 바티칸의 지도자들 사이의 최초의 대면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은 소련에서 오랫동안 금지되어 온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89년 12월 11일자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종교 자유의 회복에는 스탈린이 1946년에 이를 러시아 정교회에 흡수시키도록 명령한 이래 지하에서 존속해 온 신자 500만 명 규모의 우크라이나 가톨릭교회에 대한 공식 금지 조치의 해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교회의 합법화를 달성하는 것은 교황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그 잡지는 이것을 무신론적 지배의 약화와 가톨릭 권세의 회복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는 바티칸의 외교적 압력의 직접적 결과이자 다니엘 11장 40절 성취의 이정표로 규정되며, 우크라이나는 구 공산권 지역에서 교황권이 영향력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시적 사례로 제시된다.

우크라이나: 교황권 진전의 증거

공산주의의 붕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무신론의 영적 패배이자 교황권의 지정학적 전진이며, 교황권이 세계적 지배로 복귀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종교 탄압 해체에 관한 사례 연구이자 동유럽에서 로마가 거둔 전략적 승리의 사례가 된다. 이는 강제된 무신론에서 회복된 가톨릭 권위로의 가시적 전환을 나타내며,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합법화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회오리바람처럼" 쓸어버리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크라이나와 보다 광범위한 예언적 연쇄

1. 1798년 -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다.
2. 1917년 - 무신론이 러시아로 이전하다(볼셰비키 혁명).
3. 1989년 -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다.
4. 우크라이나 - 가톨릭교회 합법화.
5. 교황권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한다.
6. 미합중국은 결국 교황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다니엘 11:41).
7. 온 세상이 따른다 (다니엘서 11:42-43).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무신론과 회복된 교황권의 영향력 사이의 전환 과정의 일부로서 제3-4단계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참조된 문헌

- 제프 피펜저(주된 신학적 틀)

예언의 영

- 대쟁투
- 선별된 기별
- 교회를 위한 증언

세속 언론

- 타임지
- 라이프지
-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톨릭교회에 대한 박해
- 우크라이나 가톨릭교회의 지하 생존
- 고르바초프-바티칸 간 외교
- 가톨릭 교계제도의 법적 복원

소식지 내 우크라이나의 역할 요약

우크라이나는 소련 무신론 아래에서 억압된 가톨릭의 견고한 보루였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합법화는 남방 왕의 약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바티칸의 영향력은 교황권의 재부상을 입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종교적 전환은 다니엘 11장 40절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시적 증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사건들은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는 첫 단계의 일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는 고립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 11장의 최종 국면 속에 있는 예언적 표징으로 제시된다.